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66 호 현대불교
2019년 10월 30일(10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수계를 받고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지요

질문 올해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오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매년 수계법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편으로만 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뜻이 한 찰나에 온 누리에 서리는 것이고, 악한 일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또는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공부에도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둬야 문리가 터지고 충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같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계율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생각을 다 놓고 욕심과 집착과 관습을 다 놓아 버리게 된다면,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바다에 별의별 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이런 물 저런 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로 보지 않기에 일체를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공심으로서 생각한다면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지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있는데,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는 것은 참다운 인욕이 아니죠. 놓는 것이 인욕이에요. 그 자체를 놓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지 않고 놓으라고 그랬죠.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계를 받고 둘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요,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계를 받는 그 뜻을 마음으로 새겨야지, 그냥 한 번 받았다 두 번 받았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를 설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뜻도 책임이 있으니 잘 생각해서 계를 지키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만약에 승천해서 극락으로 가는 길을 지금 청와대로 비유를 한다면,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를 받은 그 뜻의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거추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를 설하는 사이 없이 설하고 주는 것이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허탈히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도 찰나찰나 공해서 변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우리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젊어지고 늙어지고, 늙어지면 병들어 없어지고 찰나찰나 또 생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은 그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애를 써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옳게, 단 10원을 쓴다 하더라도 옳게 써야지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를 주는 내 책임도 있느니만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계를 받는 것이, 계첩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고 부처님의 뜻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가 말없이 말로 전달되고, 손 없는 손이 온 누리에 꽉 차 있고, 걸어 다님이 없이 평발을, 부처님의 발은 한발로 디뎠기에 평발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모두 멋쟁이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참다운 인간으로서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인대도 두려울 게 없고, 살린대도 뭐, 좋을 것이 없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평등한 마음으로 두루 굴리면서 자기라는 생각은 쑤욱 빼 버린다면 일체가 한마음으로 세세생생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새 바깥으로 끄달리게 됩니다

질문 참나를 발견해 보겠다고 늘 안으로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새 이 마음이 바깥으로 끄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별적인 내가 아닙니다. 내 몸속으로도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 짓는 그 찰나가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깥의 외부의 일도 바로 나 자체 이 개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밖으로도 개별적인 나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생명들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나야. 내 거야.'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전해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말도 하게 하고 똑똑하게 다니게도 해 주는데 모두 내가 혼자 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은 무시하는 거죠.

모두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서 서로 고정됨이 없이 내부나 외부나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고 이 우주 전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인 나 하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총합해서 '주인공'이라 한다면 내 근본에다가 맡겨 놔야죠. '야! 내가 억겁 천년 전서부터 이끌어 온 것도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나를 형성시킨 것도 내 주인공이요, 바로 지금도 끌고 가는 게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아픈 것도 내 주인공밖에는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다. 내가 가난한 것도 이끌어 주는 건 바로 내 주인공밖에 없다. 내가 일이 막혀서 안 되는 것을 이끌어 주는 것도 내 주인공밖

☞ A18면으로 계속